

일 주 문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9월 2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658명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개산대재 및 합동수계식
김계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10월 18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개산 1415주년 대재 및 보살계 합동수계식을 올린다.

제6회 청소년UCC공모전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0월 20일까지 제6회 청소년 UCC공모전을 개최한다. (02)3218-4828

'불교와 언어' 학술세미나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보각 스님은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언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 정기세미나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도현 스님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0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랑오계비 이전 법회
청도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11월 2일 화랑오계비 이전법회를 개최한다.

자장면 만발공양
남원 선원사 주지 운전 스님은 10월 22일 의성군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팔순잔치에서 지역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장면 만발공양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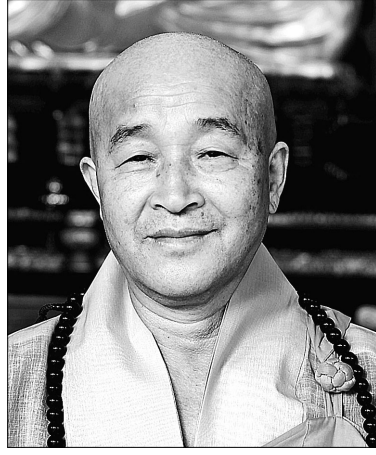
불교호스피스협회 신입임장
정도마을자재요양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10월 17일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진흥원 화요열린강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1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최진석 서강대 교수 초청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허준 동의보감상 수상
동국대 한의학과 박용기 교수는 10월 8일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의보감상 학술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중포교 정신 선양할 터”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 개원한 진관 스님



10월 7일 조계사에서 연구원 개원
이사장 법산 스님 등 학자 포진
포교이론 개발, 인재양성 나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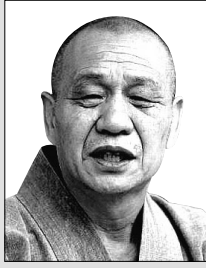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와 탑골공원 등에서 40여년간 시민들에게 무차별법을 펼친 무진장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연구원이 문을 열었다.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이 10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초대원장에 추대된 진관 스님은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은 불법홍포에 일생을 바쳤던 무진장 대중사의 보살행을 선양하기 위함”이라며 “적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실천으로 옮긴 무진장 스님의 포교정신을 선양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어갈 전법사와 포교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관 스님은 포교 방법론 연구에 연구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밝혔다. 스님은 “포교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포교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포교방법 및 실천 운동 등을 연구·개발해 현 시대에 걸맞는 포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은 무진장 스님 선양 및

포교이론 개발, 포교사 및 포교연구자 후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무진장 스님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포교성과를 연구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내년 상반기 중 학술세미나를 열고 조명한다. 또

불교사상과 사회제반 학문과의 통섭·융합적 연구를 통해 포교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정기학술지 발간을 통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무진장 스님의 포교정신을 실천하는 석·박사 연구자를 후원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포교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진관 스님은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은 대한 불교총본산 조계사에서 50여 년간 포교에 진력한 무진장 대중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연구원 개원을 후원한 조계사도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과 함께 무진장 스님의 입적 2주기에 맞춰 선양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행 스님은 이날 “스님의 포교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상 조명 세미나와 유품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진관 스님이 맡았다. 이사장에 법산 스님, 명예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부이사장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과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상임이사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다. 노덕현 기자

“물아일체의 경지, 드러나”

오현 스님, 7년 만의 신작시 공개



속초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사진)이 7년 만에 신작시를 발표했다. 오현 스님은 시 전문월간지 <유심> 10월호 유심시단에 '이승훈 시인의 시'라는 제목의 짧은 시를 출품했다. 한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승훈(73) 시인을 주제로 오현 스님은 선불교와 모더니즘의 접합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했다. 스님의 시 부제는 '선과 아방가르드'를 보고'로 이승훈 시인이 선불교의 관점에서 시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을 치하했다. 오현 스님은 시에서 '이승훈의 시를 읽으면 몸이 우는 울음은 울음 아니다 이승훈의 시를 읽을 때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느낌 아니다 이승훈의 시를 읽지 않으면 이승훈도 없다 이승훈의 시를 읽지 않으면 시인이 된다'고 표현했다. 이승훈 시인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18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엔 시가 아닌 '금강경과 만나다'라는 주제의 평론으로 수상했다. 오현 스님은 지난 2007년 시집 <아득한 성자>로 각종 문학상을 탔다. 한편, 이번 <유심> 10월호에는 권기호, 문정희, 김태준 등 20여 시인들의 신작시가 실렸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밥상으로 탈북대학생 건강 챙겨요”

반찬지원 사업 펼치는 통일바라밀숲 남지심 공동대표

“탈북 청소년 상당수가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건너와요. 학생들에게 일주일 먹을 반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서 '부처님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탈북대학생 지원단체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이 11월부터 반찬지원 사업 '부처님 밥상'을 실시한다. 탈북대학생 장학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한국사 교육사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통일바라밀숲

은 '부처님 밥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기를 불어넣어주고자 한다. '부처님 밥상'은 매주 토요일마다 탈북 대학생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남부한 음식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 대표는 “매주 토요일 학생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업에 쫓겨 조리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편한 시간에 반찬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이



듣든지 밥 먹고 학교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통일바라밀숲은 각종 단체나 후원자들의 후원을 기다린다. “통일바라밀숲 장학생을 중심으로 반찬 지원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반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일바라밀숲은 각종 식재료 지원 및 후원금을 보시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계좌: 농협 302-0717-2650-01, 예금주 남지심) (070)8880-8202 정혜숙 기자

만우장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시행

동국대 38명학생 미국 동부 대학 및 사찰서 연수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0월 6일 백주년 기념관에서 2014 만우장학 해외연수 보고회와 이번 2015년 해외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다. 만우장학 프로그램은 조일환 한미 불교진흥재단이사장이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글로벌 불교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2008년 30만불의 장학금을 출연해 진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8명의 학생에게 미국

동부일원 대학 및 사찰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2015년 만우장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환학생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기제 해외학점 이수프로그램으로 시행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5명의 학생들은 1인당 동국대 경주캠퍼스 만우장학금 3백만원과 미국 현지 만우장학금 8천 5백불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조일환 만우장학회 이사장은 “만우장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우수 대학에서 어학 연수 및 문화체험 활동으로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속에서 한국불교의 현위치를 바로 알고 한국불교인재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제11대 총학생회 워크숍



금강대(총장 정병조) 총학생회는 10월 2~3일 1박2일 간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 총학생회 2014학년도 구인사 워크숍을 실시했다. 학생 자체적으로 준비한 이번 워크숍은 제11대 총학생회에서 처음 실시한 행사로 지난 6월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관음참의법회, 적멸궁 참배 등을 진행했다. 김주필 기자

지구촌공생회, 갯바위서 모금



지구촌공생회 서울사무국, 대구지부, 익산지회는 10월 1일, 팔공산 '갯바위'와 선본사 일대에서 지구촌 소의계층 돕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48명의 신규 후원자가 후원을 약속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창간 20주년

보조사상연구원 제 24차 국내학술대회

여말선초 보조선의 문화와 확산

일시: 10월 18일 10시 ~ 17시 | 장소: 서울 법륜사 대웅보전

인사말

한국불교학을 선도해 온 보조사상연구원이 제24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펼친 보조선풍이 여말 선초의 선사들과 거사들에게 어떻게 연속되어졌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국내외의 정통한 학자님들을 모시고 학문의 향연을 열고자 하오니,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이법산 합장

학술대회 일정

식전행사
10:30 ~ 11:00
사회: 황정일(본원 실장)
삼귀의례 /반아심경 봉독
대회사 현호 큰스님(본원 이사장)
축사 무상 스님(승공사 주지)
인사말 법산 스님(본원 원장)

제1부 주제 발표
『한국 간화선의 정통성 문제 -한국의 간화선은 보조선인가 임제선인가』
11:00 ~ 12:00
1 고영섭(동국대)
논평: 최연식(동국대)
사회: 차차석(동방대)
-점심공양: 12:00 ~ 13:00

제2부 주제 발표
『여말선초 보조선(普照禪)의 법통과 법맥』
13:00 ~ 14:00
2 오경후(동국대)
논평: 김경집(위덕대)
사회: 차차석(동방대)

제3부 주제 발표
『불교 이해에 나타나는 보조의 모순과 종합성 -염불사상을 중심으로』
14:00 ~ 15:00
3 신규탁(연세대)
논평: 변희욱(서울대)
사회: 황인규(동국대)
- 휴식: 15:00 ~ 15:20

제4부 주제 발표
『여말 선초 거사들의 보조선 인식과 계승』
15:20 ~ 16:20
4 박해당(서울과기대)
논평: 박재현(동명대)
사회: 황인규(동국대)

총평 및 폐회사
16:20 ~ 17:00
5 총평: 강건기(전북대 명예교수)
6 사후서원 및 폐회사
사회: 황정일(본원 실장)
전화: 010-4494-1981 (본원 간사)
E-mail: jataka407@naver.com

